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4 주차 (3:1~21)

(2015년 2월 15일 - 2015년 2월 21일)

(제3권 4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3 권 -4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2 월 15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4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의 방문 (주일)

오늘의 말씀 (3:1~13)

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삽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Ἦν δὲ ἄνθρωπος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Νικόδημος ὄνομα αὐτοῦ.)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ἄρχων τῶν Ἰουδαίων.)
- (2절) 그가 밤에 그(예수님)에게 나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οὗτος ἦλθεν πρὸς αὐτὸν νυκτὸ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랍비여 우리는 선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ῥαββί, οἴδαμεν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λήλυθας διδάσκαλος·)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같은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οὐδεὶς γὰρ δύναται ταῦτα τὰ σημεῖα ποιεῖν ἢ σὺ ποιεῖς, ἐὰν μὴ ᾗ ὁ θεὸς μετ' αὐτοῦ.)
- (3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만약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ἐὰν μὴ τις γεννηθῇ ἄνωθεν.)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ται ἰδεῖν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 (4절) 니고데모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λέγει πρὸς αὐτὸν [ὁ] Νικόδημος·)
어떻게 사람이 그가 늙었을 때 태어날 수 있습니까? (πῶς δύναται ἄνθρωπος γεννηθῆναι γέροντων·)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μὴ δύναται εἰς τὴν κοιλίαν τῆς μητρὸς αὐτοῦ δεύτερον εἰσελθεῖν καὶ γεννηθῆναι·)
- (5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만약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면 (ἐὰν μὴ τις γεννηθῆ ἔξ ὕδατος καὶ πνεύματος·)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ται εἰσελθεῖν εἰ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 (6절)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입니다 (τὸ γεγεννημένον ἐκ τῆς σαρκὸς σὰρξ ἐστίν·)
그리고 영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καὶ τὸ γεγεννημένον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πνεῦμά ἐστιν·)
- (7절)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μὴ θαυμάσης ὅτι εἶπον σοι·)
당신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δεῖ ὑμῶς γεννηθῆναι ἄνωθεν·)
- (8절) 바람(성령)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불니다 (τὸ πνεῦμα ὅπου θέλει πνεῖ)
그리고 당신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καὶ τὴν φωνὴν αὐτοῦ ἀκούεις·)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ἀλλ' οὐκ οἶδας πόθεν ἔρχεται καὶ ποῦ ὑπάγει·)
따라서 이들이 성령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οὕτως ἐστὶν πᾶς ὁ γεγεννημένος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Νικόδημο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πῶς δύναται ταῦτα γενέσθαι·)
-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σὺ εἶ ὁ διδάσκαλος τοῦ Ἰσραὴλ καὶ ταῦτα οὐ γινώσκεις·)
-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ὅτι ὁ οἶδαμεν λαλοῦμεν)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증거합니다 (καὶ ὁ ἑωράκαμεν μαρτυροῦμεν·)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καὶ τὴν μαρτυρίαν ἡμῶν οὐ λαμβάνετε·)
- (12절) 만약 내가 당신들에게 땅의 일을 이야기 했더라도 (εἰ τὰ ἐπίγεια εἶπον ὑμῖν)
당신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οὐ πιστεύετε·)
만약 내가 당신들에게 하늘 위의 일들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 어떻게 당신들이 믿겠습니까?
(πῶς ἐὰν εἶπω ὑμῖν τὰ ἐπουράνια πιστεύσετε·)
- (13절) 어느 누구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ἀναβέβηκεν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만약 하늘로부터 내려 오지 않은 자라면 (εἰ μὴ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ῆς·)
[그가] 인자(사람의 아들)[입니다]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입니다. 요한은 그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비교적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3장1절~21절). 사실 요한복음을 잘 살펴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록이 예수님과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과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 4장에서는 어떤 사마리아 여인, 5장에서는 38년된 어떤 병자, 8장은 간음하다 잡혀온 한 여인, 9장은 나면서부터 소경인 어떤 사람, 11장은 죽은 나사로입니다. 주목할 점은 니고데모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입니다(8장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의 만남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은 전체의 요약이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빛으로 인도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절을 읽으십시오. 1절은 니고데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적어 보십시오.

그가 속한 종파:
그의 이름:
그의 사회적 지위:

그는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3개의 서로 다른 종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종파가 바리새파이고, 나머지는 사두개파와 에센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강조하였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율법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데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갈등을 빚은 종파가 이 바리새파입니다. 반면, 정치 권력을 통해 세상의 부귀를 추구하는 종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내세를 강조하고 부활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도래를 기다렸다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부인하고 현 세상에서의 축복을 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상의 도래와 부활을 기다리기 보다는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종교적 세계관과 신념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예수님이 혹시 그분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 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세 번 등장합니다. 3장 외에도 7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함으로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편잔을 듣게 되고,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장례용품을 준비해 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해 매우 주목하였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니고데모는 단순히 바리새인이며 공회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한 바리새인이 어떻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2절 상반절을 읽으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여기서 밤은 단순히 시간상의 밤 외에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어둠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8절을 읽으십시오.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⁵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⁶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⁷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⁸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물론 니고데모는 밤에 왔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 보면 밤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21절을 읽으십시오.

“¹⁹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²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²¹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9~21 말씀을 읽고, 밤과 어둠이 의미하는 바를 당신의 말로 적어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진정한 표적 (월요일)

오늘의 말씀 (3:1~13)

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삽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Ἦν δὲ ἄνθρωπος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Νικόδημος ὄνομα αὐτοῦ.)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ἄρχων τῶν Ἰουδαίων.)
- (2절) 그가 밤에 그(예수님)에게 나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οὗτος ἦλθεν πρὸς αὐτὸν νυκτὸ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랍비여 우리는 선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ῥαββί, οἴδαμεν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λήλυθας διδάσκαλος·)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같은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οὐδεὶς γὰρ δύναται ταῦτα τὰ σημεῖα ποιεῖν ἢ σὺ ποιεῖς, ἐὰν μὴ ἦ ὁ θεὸς μετ' αὐτοῦ.)
- (3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만약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ἐὰν μὴ τις γεννηθῇ ἄνωθεν.)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ται ἰδεῖν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 (4절) 니고데모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λέγει πρὸς αὐτὸν [ὁ] Νικόδημος·)
 어떻게 사람이 그가 늙었을 때 태어날 수 있습니까? (πῶς δύναται ἄνθρωπος γεννηθῆναι γέροντων·)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μὴ δύναται εἰς τὴν κοιλίαν τῆς μητρὸς αὐτοῦ δεύτερον εἰσελθεῖν καὶ γεννηθῆναι·)
- (5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만약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면 (ἐὰν μὴ τις γεννηθῆ ἔξ ὕδατος καὶ
 πνεύματος·)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ται εἰσελθεῖν εἰ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 (6절)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입니다 (τὸ γεγεννημένον ἐκ τῆς σαρκὸς σὰρξ ἐστίν·)
 그리고 영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καὶ τὸ γεγεννημένον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πνευμά ἐστιν·)
- (7절)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μὴ θαυμάσης ὅτι εἶπόν σοι·)
 당신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δεῖ ὑμῶς γεννηθῆναι ἄνωθεν·)
- (8절) 바람(성령)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불니다 (τὸ πνεῦμα ὅπου θέλει πνεῖ)
 그리고 당신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καὶ τὴν φωνὴν αὐτοῦ ἀκούεις·)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ἀλλ' οὐκ οἶδας πόθεν ἔρχεται καὶ ποῦ ὑπάγει·)
 따라서 이들이 성령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οὕτως ἐστὶν πᾶς ὁ γεγεννημένος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Νικόδημο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πῶς δύναται ταῦτα γενέσθαι·)
-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σὺ εἶ ὁ διδάσκαλος τοῦ Ἰσραὴλ καὶ ταῦτα οὐ γινώσκεις·)
-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ὅτι ὁ οἶδαμεν λαλοῦμεν)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증거합니다 (καὶ ὁ ἐωράκαμεν μαρτυροῦμεν·)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καὶ τὴν μαρτυρίαν ἡμῶν οὐ λαμβάνετε·)
- (12절) 만약 내가 당신들에게 땅의 일을 이야기 했더라도 (εἰ τὰ ἐπίγεια εἶπον ὑμῖν)
 당신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οὐ πιστεύετε·)
 만약 내가 당신들에게 하늘 위의 일들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 어떻게 당신들이 믿겠습니까?
 (πῶς ἐὰν εἶπω ὑμῖν τὰ ἐπουράνια πιστεύσετε·)
- (13절) 어느 누구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ἀναβέβηκεν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만약 하늘로부터 내려 오지 않은 자라면 (εἰ μὴ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ῆς·)
 [그가] 인자(사람의 아들)[입니다]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밤에 예수님을 찾아 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2 절을 읽으십시오. 니고데모는 “랍비여, 우리는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같은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니고데모는 ‘랍비’라는 표현과 ‘선생’이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랍비라는 말은 단순히 율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가 가르침 대로 삶으로써 행위의 본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랍비라고 부를 때에는 그 사람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로 부르고 따르기로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3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정도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니고데모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이런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의미를 적어 보세요.

2절 마지막 부분을 읽으십시오. 니고데모는 어떤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중시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유대인들은 강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사상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이적들과 가르침을 보며 바로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임을 직감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특징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24절을 읽으십시오.

“²²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²³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²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2 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고전 1:23 참조)

마태복음 12:38-40 을 읽으십시오.

“³⁸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 이다³⁹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⁴⁰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표적을 보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힘없는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에 당연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초월적 능력을 가진 슈퍼맨이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의 문제를 초월적으로 해결해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이해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으로 이해합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화요일)

오늘의 말씀 (3:1~13)

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삽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Ἦν δὲ ἄνθρωπος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Νικόδημος ὄνομα αὐτοῦ.)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ἄρχων τῶν Ἰουδαίων.)
- (2절) 그가 밤에 그(예수님)에게 나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οὗτος ἦλθεν πρὸς αὐτὸν νυκτὸ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랍비여 우리는 선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ῥαββί, οἴδαμεν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λήλυθας διδάσκαλος·)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같은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οὐδεὶς γὰρ δύναται ταῦτα τὰ σημεῖα ποιεῖν ἢ σὺ ποιεῖς, ἐὰν μὴ ἢ ὁ θεὸς μετ' αὐτοῦ.)
- (3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만약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ἐὰν μὴ τις γεννηθῇ ἄνωθεν.)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ται ἰδεῖν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 (4절) 니고데모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λέγει πρὸς αὐτὸν [ὁ] Νικόδημος·)
 어떻게 사람이 그가 늙었을 때 태어날 수 있습니까? (πῶς δύναται ἄνθρωπος γεννηθῆναι γέροντων·)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μὴ δύναται εἰς τὴν κοιλίαν τῆς μητρὸς αὐτοῦ δεύτερον εἰσελθεῖν καὶ γεννηθῆναι·)
- (5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만약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면 (ἐὰν μὴ τις γεννηθῆῃ ἐξ ὕδατος καὶ
 πνεύματος·)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ται εἰσελθεῖν εἰ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 (6절)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입니다 (τὸ γεγεννημένον ἐκ τῆς σαρκὸς σὰρξ ἐστίν·)
 그리고 영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καὶ τὸ γεγεννημένον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πνευμά ἐστιν·)
- (7절)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μὴ θαυμάσης ὅτι εἶπόν σοι·)
 당신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δεῖ ὑμῶς γεννηθῆναι ἄνωθεν·)
- (8절) 바람(성령)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불니다 (τὸ πνεῦμα ὅπου θέλει πνεῖ)
 그리고 당신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καὶ τὴν φωνὴν αὐτοῦ ἀκούεις·)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ἀλλ' οὐκ οἶδας πόθεν ἔρχεται καὶ ποῦ ὑπάγει·)
 따라서 이들이 성령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οὕτως ἐστὶν πᾶς ὁ γεγεννημένος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Νικόδημο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πῶς δύναται ταῦτα γενέσθαι·)
-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σὺ εἶ ὁ διδάσκαλος τοῦ Ἰσραὴλ καὶ ταῦτα οὐ γινώσκεις·)
-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ὅτι ὁ οἶδαμεν λαλοῦμεν)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증거합니다 (καὶ ὁ ἑωράκαμεν μαρτυροῦμεν·)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καὶ τὴν μαρτυρίαν ἡμῶν οὐ λαμβάνετε·)
- (12절) 만약 내가 당신들에게 땅의 일을 이야기 했더라도 (εἰ τὰ ἐπίγεια εἶπον ὑμῖν)
 당신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οὐ πιστεύετε·)
 만약 내가 당신들에게 하늘 위의 일들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 어떻게 당신들이 믿겠습니까?
 (πῶς ἐὰν εἶπω ὑμῖν τὰ ἐπουράνια πιστεύσετε·)
- (13절) 어느 누구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ἀναβέβηκεν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만약 하늘로부터 내려 오지 않은 자라면 (εἰ μὴ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ῆς·)
 [그가] 인자(사람의 아들)[입니다]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절을 읽으십시오. 니고데모의 말을 이어 받은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말은 대부분 ‘거듭나다’ 또는 ‘다시 태어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아노덴 (ἀνωθεν)’을 보면 ‘~부터’라는 방향을 의미하는 접미어 ‘덴 (θεν)’이 있으므로 “위로부터 태어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를 더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로부터 난 자들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다” (to see)라는 단어의 원형은 ‘호라오’ (ὁράω)인데 이 단어는 단지 육안으로 무엇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폭넓게는 영적인 깨달음, 영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볼 수 없다”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능력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볼 눈이 주어져야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 볼 수 있는 눈은 누구로부터 주어질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니고데모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2절의 니고데모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로 하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이 말을 이어 받아 “위로부터 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하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반드시 인간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말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4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일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들의 논리나 세계관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시와 설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서 니고데모에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5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물은 당연히 화학식 H_2O 로 표기되는 그런 물(water)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아직 어떤 것도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물은 H_2O 로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단어는 물과 성령 앞에 쓰인 전치사 ‘에크(ἐκ)’입니다. 이 전치사는 원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다시말해 물과 성령이 생명의 원천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물과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천이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천이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로는 누구라고 생각되나요?

만약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앞으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 비밀이 밝혀질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수요일)

오늘의 말씀 (3:1~13)

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삽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Ἦν δὲ ἄνθρωπος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Νικόδημος ὄνομα αὐτοῦ),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ἄρχων τῶν Ἰουδαίων·)
- (2절) 그가 밤에 그(예수님)에게 나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οὗτος ἦλθεν πρὸς αὐτὸν νυκτὸ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랍비여 우리는 선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ῥαββί, οἴδαμεν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λήλυθας διδάσκαλος·)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같은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οὐδεὶς γὰρ δύναται ταῦτα τὰ σημεῖα ποιεῖν ἢ σὺ ποιεῖς, ἐὰν μὴ ᾗ ὁ θεὸς μετ' αὐτοῦ.)
- (3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만약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ἐὰν μὴ τις γεννηθῇ ἄνωθεν·)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ται ἰδεῖν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 (4절) 니고데모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λέγει πρὸς αὐτὸν [ὁ] Νικόδημος·)
어떻게 사람이 그가 늙었을 때 태어날 수 있습니까? (πῶς δύναται ἄνθρωπος γεννηθῆναι γέρον ὢν·)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μὴ δύναται εἰς τὴν κοιλίαν τῆς μητρὸς αὐτοῦ δεύτερον εἰσελθεῖν καὶ γεννηθῆναι·)
- (5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만약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면 (ἐὰν μὴ τις γεννηθῆ ἔξ ὕδατος καὶ πνεύματος·)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ται εἰσελθεῖν εἰ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 (6절)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입니다 (τὸ γεγεννημένον ἐκ τῆς σαρκὸς σὰρξ ἐστίν·)
그리고 영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καὶ τὸ γεγεννημένον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πνεῦμά ἐστιν·)
- (7절)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μὴ θαυμάσης ὅτι εἶπον σοι·)
당신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δεῖ ὑμῶς γεννηθῆναι ἄνωθεν·)
- (8절) 바람(성령)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불니다 (τὸ πνεῦμα ὅπου θέλει πνεῖ)
그리고 당신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καὶ τὴν φωνὴν αὐτοῦ ἀκούεις·)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ἀλλ' οὐκ οἶδας πόθεν ἔρχεται καὶ ποῦ ὑπάγει·)
따라서 이들이 성령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οὕτως ἐστὶν πᾶς ὁ γεγεννημένος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Νικόδημο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πῶς δύναται ταῦτα γενέσθαι·)
-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σὺ εἶ ὁ διδάσκαλος τοῦ Ἰσραὴλ καὶ ταῦτα οὐ γινώσκεις·)
-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ὅτι ὁ οἶδαμεν λαλοῦμεν)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증거합니다 (καὶ ὁ ἐωράκαμεν μαρτυροῦμεν·)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καὶ τὴν μαρτυρίαν ἡμῶν οὐ λαμβάνετε·)
- (12절) 만약 내가 당신들에게 땅의 일을 이야기 했더라도 (εἰ τὰ ἐπίγεια εἶπον ὑμῖν)
당신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οὐ πιστεύετε·)
만약 내가 당신들에게 하늘 위의 일들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 어떻게 당신들이 믿겠습니까?
(πῶς ἐὰν εἶπω ὑμῖν τὰ ἐπουράνια πιστεύσετε·)
- (13절) 어느 누구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ἀναβέβηκεν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만약 하늘로부터 내려 오지 않은 자라면 (εἰ μὴ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ῆς·)
[그가] 인자(사람의 아들)[입니다]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6절을 읽으십시오.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6절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생명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명에 대한 정의가 다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십니다.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입니다. 영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세계관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어머니의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며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질문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설령 니고데모의 말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다시 육신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입은 인간이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첫 열매로 보여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육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¹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¹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¹²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¹³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¹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¹⁵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9-15).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²¹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²²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0-22).

성령으로부터 난자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땅으로부터 온 육신을 반납하고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산 것도, 공회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 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⁶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빌 3:5-6).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의 타고난 태생적 배경이나 이 땅에서 그가 이루어 놓은 종교적 업적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찾아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는 성령님이 찾아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에 대해 간단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어떻게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목요일)

오늘의 말씀 (3:1~13)

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삽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Ἦν δὲ ἄνθρωπος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Νικόδημος ὄνομα αὐτοῦ.)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ἄρχων τῶν Ἰουδαίων.)
- (2절) 그가 밤에 그(예수님)에게 나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οὗτος ἦλθεν πρὸς αὐτὸν νυκτὸ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랍비여 우리는 선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ῥαββί, οἴδαμεν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λήλυθας διδάσκαλος·)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같은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οὐδεὶς γὰρ δύναται ταῦτα τὰ σημεῖα ποιεῖν ἢ σὺ ποιεῖς, ἐὰν μὴ ᾗ ὁ θεὸς μετ' αὐτοῦ.)
- (3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만약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ἐὰν μὴ τις γεννηθῇ ἄνωθεν.)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ται ἰδεῖν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 (4절) 니고데모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λέγει πρὸς αὐτὸν [ὁ] Νικόδημος·)
 어떻게 사람이 그가 늙었을 때 태어날 수 있습니까? (πῶς δύναται ἄνθρωπος γεννηθῆναι γέροντων·)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μὴ δύναται εἰς τὴν κοιλίαν τῆς μητρὸς αὐτοῦ δεύτερον εἰσελθεῖν καὶ γεννηθῆναι·)
- (5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만약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면 (ἐὰν μὴ τις γεννηθῆ ἔξ ὕδατος καὶ
 πνεύματος·)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ται εἰσελθεῖν εἰ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 (6절)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입니다 (τὸ γεγεννημένον ἐκ τῆς σαρκὸς σὰρξ ἐστίν·)
 그리고 영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καὶ τὸ γεγεννημένον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πνευμά ἐστίν·)
- (7절)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μὴ θαυμάσης ὅτι εἶπον σοι·)
 당신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δεῖ ὑμῶς γεννηθῆναι ἄνωθεν·)
- (8절) 바람(성령)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불니다 (τὸ πνεῦμα ὅπου θέλει πνεῖ)
 그리고 당신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καὶ τὴν φωνὴν αὐτοῦ ἀκούεις·)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ἀλλ' οὐκ οἶδας πόθεν ἔρχεται καὶ ποῦ ὑπάγει·)
 따라서 이들이 성령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οὕτως ἐστὶν πᾶς ὁ γεγεννημένος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Νικόδημο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πῶς δύναται ταῦτα γενέσθαι·)
-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σὺ εἶ ὁ διδάσκαλος τοῦ Ἰσραὴλ καὶ ταῦτα οὐ γινώσκεις·)
-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ὅτι ὁ οἶδαμεν λαλοῦμεν)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증거합니다 (καὶ ὁ ἑωράκαμεν μαρτυροῦμεν·)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καὶ τὴν μαρτυρίαν ἡμῶν οὐ λαμβάνετε·)
- (12절) 만약 내가 당신들에게 땅의 일을 이야기 했더라도 (εἰ τὰ ἐπίγεια εἶπον ὑμῖν)
- (13절) 당신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οὐ πιστεύετε·)
 만약 내가 당신들에게 하늘 위의 일들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 어떻게 당신들이 믿겠습니까?
 (πῶς ἐὰν εἶπω ὑμῖν τὰ ἐπουράνια πιστεύσετε·)
- (14절) 어느 누구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ἀναβέβηκεν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만약 하늘로부터 내려 오지 않은 자라면 (εἰ μὴ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ῆς·)
 [그가] 인자(사람의 아들)[입니다]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8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알듯말듯한 비유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글 성경은 “바람이 임의로 불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

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개역개정)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으로 번역된 ‘토프뉴마’(τὸ πνεῦμα)는 성령과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8절에 이 단어가 두번 등장하는데 우리 번역은 한번은 ‘바람’으로 한번은 ‘성령’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Word Play 를 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 보다는 둘 다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바람)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고 당신은 그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성령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마주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고 있다는 동사 ‘아코우에이스’(ἀκούεις)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고 생명이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독자일 뿐이며 성경은 그저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책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답답하지 않은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1~2).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만약 아직도 100% 은혜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믿음이 없이 한구석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음성(성령의 소리)을 들었습니까? 그 소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개인적인 체험을 적어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읽으십시오. 니고데모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약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깨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1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로서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3:1-4).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위에 것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는가? (금요일)

오늘의 말씀 (3:1~13)

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삽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Ἦν δὲ ἄνθρωπος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Νικόδημος ὄνομα αὐτοῦ.)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ἄρχων τῶν Ἰουδαίων.)
- (2절) 그가 밤에 그(예수님)에게 나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οὗτος ἦλθεν πρὸς αὐτὸν νυκτὸ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랍비여 우리는 선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ῥαββί, οἴδαμεν ὅτι ἀπὸ θεοῦ ἐλήλυθας διδάσκαλος·)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같은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οὐδεὶς γὰρ δύναται ταῦτα τὰ σημεῖα ποιεῖν ἢ σὺ ποιεῖς, ἐὰν μὴ ᾗ ὁ θεὸς μετ' αὐτοῦ.)
- (3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만약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ἐὰν μὴ τις γεννηθῇ ἄνωθεν.)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ται ἰδεῖν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 (4절) 니고데모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λέγει πρὸς αὐτὸν [ὁ] Νικόδημος·)
 어떻게 사람이 그가 늙었을 때 태어날 수 있습니까? (πῶς δύναται ἄνθρωπος γεννηθῆναι γέροντων·)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μὴ δύναται εἰς τὴν κοιλίαν τῆς μητρὸς αὐτοῦ δεύτερον εἰσελθεῖν καὶ γεννηθῆναι·)
- (5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만약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면 (ἐὰν μὴ τις γεννηθῆ ἔξ ὕδατος καὶ
 πνεύματος·)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οὐ δύναται εἰσελθεῖν εἰ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 (6절)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입니다 (τὸ γεγεννημένον ἐκ τῆς σαρκὸς σὰρξ ἐστίν·)
 그리고 영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καὶ τὸ γεγεννημένον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πνευμά ἐστιν·)
- (7절)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μὴ θαυμάσης ὅτι εἶπον σοι·)
 당신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δεῖ ὑμῶς γεννηθῆναι ἄνωθεν·)
- (8절) 바람(성령)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불니다 (τὸ πνεῦμα ὅπου θέλει πνεῖ)
 그리고 당신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καὶ τὴν φωνὴν αὐτοῦ ἀκούεις·)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ἀλλ' οὐκ οἶδας πόθεν ἔρχεται καὶ ποῦ ὑπάγει·)
 따라서 이들이 성령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οὕτως ἐστὶν πᾶς ὁ γεγεννημένος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Νικόδημο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πῶς δύναται ταῦτα γενέσθαι·)
-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σὺ εἶ ὁ διδάσκαλος τοῦ Ἰσραὴλ καὶ ταῦτα οὐ γινώσκεις·)
-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ὅτι ὁ οἶδαμεν λαλοῦμεν)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증거합니다 (καὶ ὁ ἑωράκαμεν μαρτυροῦμεν·)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καὶ τὴν μαρτυρίαν ἡμῶν οὐ λαμβάνετε·)
- (12절) 만약 내가 당신들에게 땅의 일을 이야기 했더라도 (εἰ τὰ ἐπίγεια εἶπον ὑμῖν)
 당신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καὶ οὐ πιστεύετε·)
 만약 내가 당신들에게 하늘 위의 일들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 어떻게 당신들이 믿겠습니까?
 (πῶς ἐὰν εἶπω ὑμῖν τὰ ἐπουράνια πιστεύσετε·)
- (13절) 어느 누구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ἀναβέβηκεν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만약 하늘로부터 내려 오지 않은 자라면 (εἰ μὴ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ῆς·)
 [그가] 인자(사람의 아들)[입니다]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2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만약 내가 당신들에게 땅의 일을 이야기 했더라도 당신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당신들에게 하늘 위의 일들을 이야기 한 것이라면 어떻게 당신들이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당신이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당신들이라는 복수를 사용

합니다. 영어의 2인칭은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없으나 헬라어에서는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복수를 사용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 나아가 유대교를 믿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믿음 보다는 당시의 세계관을 통틀어 말한 것입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 들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죽이기 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는 가정법 (if)이 두번 사용되었는데 한번은 완전 가정,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능성 즉,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가정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완전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땅의 일을 말하지 않았는데 만약 내가 땅의 일을 말했어도 당신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땅의 일을 말했어도 믿지 않았을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만약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였다면, 당신이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하셨고, 땅의 일도 믿지 않은 그들이 하늘의 일을 어떻게 깨달아 믿음으로 화답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을 쓰시며 일관되게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전혀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신 것이지요. “어떻게 당신들이 믿겠는가?”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은 땅에 속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들은 성경을 단지 인생의 교훈 수준으로 이해할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오게 되면(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비로소 성경은 읽는 자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13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왜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를 명쾌하게 설명하십니다. 우선 하늘로부터 온 자 즉, 인자만이 하늘에 올라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인자 한 분이요 하늘로부터 난 자도 인자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하늘로부터 난 자(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⁸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⁹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¹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엡 4:7-10).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그분을 믿음으로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반납해야 할 흙으로 만든 집(육신) 안에 갇혀 있지만 진리를 알기에 진리가 주는 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⁶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⁶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⁷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엡 2:5-7).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당신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광야의 늦밤은 누구인가? (토요일)

오늘의 말씀 (요 3:14~21)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14절)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같이
(Καὶ καθὼς Μωϋσῆς ὑψωσεν τὸν ὄφιν ἐν τῇ ἐρήμῳ.)
따라서 인자가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οὕτως ὑψωθῆναι δεῖ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 (15절)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ἵνα πᾶς ὁ πιστεύων ἐν αὐτῷ ἔχη ζωὴν αἰώνιον.)
- (16절) [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οὕτως γὰρ ἠγάπησεν ὁ θεὸς τὸν κόσμον.)
그래서 홀로 존재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ὥστε τὸν υἱὸν τὸν μονογενῆ ἔδωκεν.)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ἵνα πᾶς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ὸν μὴ ἀπόληται ἀλλ' ἔχη ζωὴν αἰώνιον.)
-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목적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οὐ γὰρ ἀπέστειλεν ὁ θεὸς τὸν υἱὸ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ἵνα κρίνη τὸν κόσμον.)
반대로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되도록 하실 목적으로 [보내셨습니다]
(ἀλλ' ἵνα σωθῆ ὁ κόσμος δι' αὐτοῦ.)
- (18절) 그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ὸν οὐ κρίνεται.)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되었습니다 (ὁ δὲ μὴ πιστεύων ἤδη κέκριται.)
왜냐하면,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μὴ πεπίστευκεν εἰς τὸ ὄνομα τοῦ μονογενοῦς υἱοῦ τοῦ θεοῦ.)
- (19절) 그리고 이것이 심판입니다 (αὕτη δέ ἐστιν ἡ κρίσις)
빛이 세상으로 들어 왔습니다 (ὅτι τὸ φῶς ἐλήλυθε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καὶ ἠγάπησαν οἱ ἄνθρωποι μᾶλλον τὸ σκότος ἢ τὸ φῶς·)

왜냐하면 그들의 일이 악이었습니다 (ἦν γὰρ αὐτῶν πονηρὰ τὰ ἔργα.)

(20절) 왜냐하면 무가치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빛을 싫어 합니다

(πᾶς γὰρ ὁ φαῦλα πρίσσει τὸ φῶς)

그리고 빛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καὶ οὐκ ἔρχεται πρὸς τὸ φῶς·)

그들의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ἵνα μὴ ἐλεγχθῇ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21절) 그러나 진리는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향해 나옵니다 (ὁ δὲ ποιῶν τὴν ἀλήθειαν ἔρχεται πρὸς τὸ φῶς·)

그 결과 하나님에 의해 수행된 그의 일이 밝혀지게 됩니다

(ἵνα φανερωθῇ αὐτοῦ τὰ ἔργα ὅτι ἐν θεῷ ἔστιν εἰργασμέν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꺼내십니다. 14-15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하도록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가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옛날 광야의 뱀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의 모형이 됩니다. 먼저 광야의 뱀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민수기 21 장 4-9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4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좇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 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 하노라 하매 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므로 범죄 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민21:4-9).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만을 강조해서 보면 안됩니다. 그들은 늘 그랬 으니까요. 그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각기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 훈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죄를 엄하게 묻기도 하시며, 더 나아가서 지도자인 모세를 벌하기도 하셨습니다(므리바 사건). 이번의 사건은 백성들이 자신들이 행진하는 경로에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그들이 불평하는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집트를 떠난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커녕 계속해서 돌과 모래 뿐인 사막길을 걷고 있으니 그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다고 탓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가차없이 내려집니다. 이 때 보낸 것이 불뱀입니다. 이 불뱀 사건을 보면 솔직히 인내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기 보다는 은혜없는 매정한 하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나눔을 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불뱀으로 그들을 벌하고 또 징벌의 도구로 쓰였던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였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모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민수기 21 장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백성들은 이미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지요. 이들이 죄를 지은 것 그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렀음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18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불뱀에 물려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불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됩니다. 불뱀의 독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고 살아 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불뱀에 물려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전인격적으로 느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그분께 매달리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이고 법적으로 죄문제를 다루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없고, 구원 또한 지식 수준에만 머물게 됩니다. 온전한 구원은 온전한 굴복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인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복음은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죽음을 통과해야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을 경험했나요? 그 경험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그룹으로 모일 경우 서로 나누어 보세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